

나주 '백호문학관' 6년만에 우여곡절 개관

운영주체·유물 확보 못해 준공후 개관 미뤘다 13일 문열어

조선 중기 시인이자 문신인 백호(白湖) 임제(林樾, 1549~1587) 선생의 문학사상 등을 기리고자 건립한 백호문학관이 사업 추진, 6년여 만에 문을 연다.

문학관을 준공해놓고도 운영주체나 유물을 확보 못 해 2년 가까이 개관이 미뤄지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나주시는 오는 13일 임제 선생의 고향인 다시면 회진리에 사업비 33억원을 들인 백호문학관(사진)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 문학관은 지난 2007년 사업 추진에 들어가 2011년 7월 건물만 준공하고 이후 추가 재원을 확보, 전시관, 수장고 등 내부공사를 진행했다. 대지 3875㎡, 전체면적 387㎡, 지상 3층 규모로, 수장고와 집필실, 문학사립방, 전시관을 갖췄다.

상설전시관에는 백호 선생의 생애와 문집, 젊은 시절 복암사에서 공부했던 석립정사 현관 친필글씨, 선생의 문집인 겸재유고 복제본이 전시돼 있다.

나주시는 문학관 개관에 맞춰 다양

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구진포, 천연염색문화관, 복암리 고분전시관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물이 복제본 문집 20여점에다 초상화, 동판 등 모두 40여점에 그쳐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주시는 마냥 개관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운영주체도 없이 문을 열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운영주체는 위탁하기로 내부방점을 정한 상태로 조



만간 광고할 계획이다"며 "예산부족에다 콘텐츠 확보 어려움으로 개관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임제 선생은 조선 중기 명(名)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시인 겸 문신으로 황진이 무덤을 지나며 읊은 '청초 우거진 골에...'로 시작된 시조 등으로 유명하다. /나주=송영희기자 yson@



검은머리물떼새 모니터링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 신안군은 8일 생태자료 확보와 종 보전을 위해 임해읍 대천리에 월동중인 검은머리물떼새 13마리에 유색 가락지와 발신기를 부착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 제공)

진도 안농마을, 농촌마을 리모델링 선정

국비 20억원 확보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진도 안농마을이 선정돼 총 2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농촌마을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정비해 거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전국 15개 시군에서 신청받아 최종 4개 시군을 선정했다.

진도 안농마을은 6·25전쟁 후 함경도와 황해도 피난민들이 1959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마을이다.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

한 실정으로 내년까지 3년간 총 41억원(국비 20억·지방비 12억·자부담 등 9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전남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전남만의 특색 있는 개발로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추진함으로써 도내 더 많은 농촌마을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보완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개씩 총 1000개 마을을 선정해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해남군, 서울 조계사에서 농수산물 특판행사

10·11일 직거래장터

해남군이 종교계와 연계해 첫 농수산물 특판행사를 연다.

군은 10일과 11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에서 '땅끝해남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음력 3월 초하루(4월 10일)를 맞아 조계사를 방문하는 5000여명의 신도들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40여 품목의 우수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해남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쌀, 고구마, 잡곡, 더덕 등과 가공식품인 장류와 차류 등을 판매해 해남 농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코너별 시식행사는 물론 도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떡메치기 체험행사도 마련해 신도와 방문객들의 높은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수도권 유통센터 및 아파트 부녀회 등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종교계와 연계한 농수산물 특판행사는 처음이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땅끝해남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연간 10회 가량의 특판행사를 개최해 4억원 가량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회원증 하나로 도내 공공도서관 이용

전남도립도서관,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전남도립도서관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내 60개 공공도서관(도시군립 39개·교육청 21개) 어느 곳이든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관서비스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8일 전남도립도서관에 따르면 회원증 하나로 전국의 모든 도서관에서 자료대출 및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 연말까지 1단계 통합회원증 발급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는 지난해 1월 개관한 도립도서관이 2012 전남도민 올해의 책 함께 읽기, 독서동아리·가족 발표대회, 독서리더 양성과정 운영 등 우수한 시책을 추진해 전남 지역 대표도서관 역할을 톡톡히 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47만여명이 이용해 39만여권의 책을 대출해 갔다. 이는 하루 평균 1420명이 이용해 1200권을 대출한 셈이다.

도립도서관은 사업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 전담팀(T/F)을 구성, 도서관별 시스템 환경 분석과 전산장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초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통합도서관서비스가 구축되면 도서관마다 각각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없어지고 도내 공공도서관 1개소에서 발급한 통합회원증으로 22개 시군, 60개 공공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군 도서관에서도 회원카드 이중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되고 주민등록번호 체계로 사용되던 도서관 회원정보를 통합회원 표준번호 체계로 변경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

최종으로 전남도립도서관장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도내 작은 도서관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도립도서관이 전남지역 공공도서관의 대표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완도 해조류박람회 참가 해외기업 첫 유치

조직위, 日 오오타유지와 협약 체결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종식 군수)는 8일 일본 오오타유지와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국외기업관 운영 참가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해조류 관련 업체 20개 참가 유치를 나선 조직위의 첫 성과다. 조직위는 국내 기업체 40개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오오타유지는 일본 110년 전통의 식용유, 조미료, 과자를 주로 생산하

는 업체다. 일본은 물론 중국과 한국에도 자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2005년부터 완도농공단지에 한국오오타식품(株)을 설립, 튀김가루와 동백기름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조직위는 부스제공, 물품통관 등을 지원한다.

오오타유지는 일본 내 해조류제품 생산업체와 해조류 관련 협회가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내년 4월 11일부터 한 달간 완도해변공원 일대에서 열릴 박람회 참가기업은 자사의 비전, 상품 소개 등 국제적 홍보전을 펼친다. 해조류를 소재로 생산한 식품, 미용, 소재, 바이오에너지, 의약품 등 관련 제품을 전시 판매한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새마을금고, 릴레이 가족 헌혈

창립 50주년... 광주·전남 106곳

새마을금고 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광주·전남지역에서 릴레이 가족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새마을금고 지역본부는 지난 4일 영광군·함평군을 시작으로 6일 목포시·무안군·신안군(사진), 9일~10일 광주시, 15일~17일 여수시 등 광주·전남 106개 관내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가족, 회원이 참여하는 가족 헌혈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에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약정을 체결하고 '행복나눔 50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1415개 금고에서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된다.

최형문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새마을금고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며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관내 새마을금고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사랑의 줄도리 운동'을 벌여 쌀 73만3000kg과 16억 600만원을 모금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흙롤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